

근대 초기 漢城府에서 나타난 삶의 경계와 계층적 변화*

— 戶籍에 기재된 平民 집단을 중심으로 —

김현진**

〈차 례〉

1. 머리말
2. 광무호적의 평민 현황과 개념
3. 평민집단의 분석과 계층적 성격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 초기 한성부 호주들이 직업과 관련 없는 평민을, 자신의 직업으로 호적에 다수 기재했던 사례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성부 광무호적을 활용하여, 근대 초기 도시 공간 안에서 나타났던 평민의 존재 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근대 초기 한성부의 평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역사적 개념을 구체화하려 하였다.

한성부는 왕의 거주지이며 수도로서 국가 시설과 중앙 관청이 집중되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한성부의 전체 거주민 중에서 전·현직 관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료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특권을 통해서 한성부의 상위 계층으로 역할 함으로써, 한성부의 지역사회는 직업과 관련하여 관직자와 비관직자에 대한 사회적 구별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평민은 '관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를 칭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한성부 거주민에게 내면화되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한성부의 호주 중에서 자신의 직업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1761).

** 인하대 사학과 강사

을 호적에 평민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당시 평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직업 항목에 본인을 평민으로 기재하였던 937명 호주의 개인 정보와 가족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호적에 기재된 평민 호주와 가족 내용을父의 직업, 기구·고용의 동거 상황, 가택과 가족의 규모 및 유형 등으로 접근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민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이었던 城內의 관료와 일부 상인 그리고 하위 계층이었던 城外의 농민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집단성을 보였다.

결국, 당시 한성부에서 평민의 사회적 인식과 개념은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이외에,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갖지 않은 보통의 그리고 평범한 자’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민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개념으로 인해서, 한성부 호적의 직업 항목에 평민이 다수 기재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근대 초기 한성부에 존재했던 일부 집단이, 자신을 정치적 특권 그리고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에서 벗어난 가장 대중적이고 평범한 서민 집단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평민으로 구체화 시켰으며, 평민은 당시 한성부에서 다른 집단과 공존하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존재 방식과 특성을 보이는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제어] 光武 戶籍, 漢城府, 平民, 가족, 집단성, 庶民, 계층

1. 머리말

1896년 새로운 호적법의 반포¹⁾로 시작된 광무 호적은 조선 후기 호적과 비교해서 새로운 양식과 내용으로 나타났다. 광무호적은 단순히 전국의 戶口 조사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사회적 성격 그리고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²⁾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이전

1) 『戶口調査規則』勅令, 第六十一號(『官報』第四百二十號 建陽元年 九月四日).

2) 지금까지 광무호적 연구는 근대 초기 각 지역 거주민의 생활상을 복원하거나 광무호적에 의한 국가 지배 방식의 변화와 성격 연구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세영,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 7, 1992; 오성, 「한말 경기도지방의 호구구성의 양상에 관한 一試論-특히 姓貫 分布와 관련하여-」, 『역사학보』 152, 1996; 조성윤·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 1996;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丹城 培養里와 淸州 德修里的 사례-」, 『대동문화연구』 49, 2005;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임학성,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朝鮮人의 거주 양태」, 『한국학연구』 21, 2009; 이정주, 「19세기 말 평안북도 구성군 家戶의 구성과 거주 양태」, 『역사민속학』 43, 2013; 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居民 樣相과 都市性格-光武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1, 2013;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이윤진,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등이 있다.

호적의 職役을 대체해서 나타난 직업 항목이다. 호주는 호적의 직업 항목에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기재하였는데, 전통적인 士·農·工·商에 의한 직업 구분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롭고 다양한 직업들이 다수 기재되었으며, 특히 한성부 호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호주의 직업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³⁾

본 연구는 光武 7년(1903) 그리고 광무 10년(1906) 漢城府 호적에 기재된 직업을 대상으로 하여, 호주가 자신의 직업을 平民으로 기재한 사례에 주목하였다. 평민은 직업에 해당 되지 않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기재한 사례가 한성부 전체 호주의 13.2%를 차지하며 관료와 상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⁴⁾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초기 평민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과 존재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평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역사 사건과 관련하여 지배 계층과 대비되는 피지배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들의 반지배체제적인 성향을 강조하거나 혁명적 주체 세력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평민의 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당시 평민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방식들을 복원하는데 주목하여, 그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서 근대 초기 한성부에 존재했던 평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역사적 개념을 재조명하려 한다.

3) 한성부 호적에 기재된 다수 직업은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조성윤·조은은 양반, 중인, 상민, 근대직업으로 구분하였으며(『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 1996), 요시다 미츠오(吉田光南)는 관료, 이속·하역, 군인·병사, 양반, 평민, 상업, 농업, 기타, 無職, 召吏, 無記로 나누었고(『근대 세울 도시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김현진은 儒業, 전·현 관료, 吏屬, 軍·巡, 평민, 상업, 농업, 專·技, 기타로 구분하였다(『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2015).

4) 조성윤·조은은 한성부의 직업별 분포 양상이 양반·관직자 36.1%, 상인 26.5%, 평민 13.7%, 농민 7.1%, 하급군병 1.3% 등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조성윤·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 한국사회사학회, 1996, 103쪽). 그런데 시기·지역별 광무호적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자의 직업 구분 방법에 따라서 전체 한성부의 직업 비율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 초기 한성부 평민에게 나타났던 그들의 현실적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광무호적을 주요 자료로 선택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성부 광무호적 속에서 평민은 전체 거주자의 상위 비율로 나타나 주민 구성에서 집단성을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다수의 평민 호주에 대한 호적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평민 집단의 공통된 존재양상과 계층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근대 초기 평민에 대한 역사적 개념과 사회적 인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내용은 평민 호주들의 호적을 그들의 개인 정보와 가족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호주의 개인 정보는 연령, 四祖, 가택, 畜口·雇傭 등이며, 가족 내용은 동거친속 그리고 가족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다. 평민 호주의 개인 정보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민 집단이 다른 직업의 계층과 어떠한 삶의 차이를 보였는지, 그들의 공동적 삶을 추적하여 평민의 사회적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접근할 것이다. 또한 전통시대 개인은 개인적 능력과 특성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지속하였다. 이에 평민 가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성부 평민 계층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관념과 특징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평민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인 통계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성부 호적에서 평민은 집단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때문에 다수의 평민 호주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평민 호주의 호적 내용을 항목에 따라서 통계화 하고, 통계 결과를 평민 집단에서 나타나는 성격과 특징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다.

셋째, 통계 분석은 단일 항목에 대한 단순 접근이 아니라, 복수의 항목을 결합하여 평민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한성부 전체의 평민 내용뿐만 아니라, 5서 지역별 평민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평민의 차이와 다양성을 살펴볼 것이며, 평민의 성격과 특성을 좀 더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직업 계층과도 비교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기의 문제의식 그리고 연구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근대 초기 한성부에 나타났던 평민의 집단적 성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한성부 거주민 사이에서 평민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규명할 것이다. 또한 평민 집단이 당시 한성부의 다양한 계층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경계 지어지고,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들의 존재 방식과 정체성을 지속·강화하였는지 아울러 살펴 볼 것이다.

2. 광무호적의 평민 현황과 개념

광무 7년·10년 한성부 호적을 대상으로, 28坊 지역의 9,834호 중에서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기재한 사례는 1,303호로 나타났다. 한성부 호적에서 전체 호주의 13.2%가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한성부 거주민들이 평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1] 광무 7·10년 한성부 호적의 지역별 평민 분포

지역	평민 호	전체 호	시기	지역	평민 호	전체 호	시기		
北署	常平坊	13(6.8)	192(100)	1903	中署	貞善坊	200(17.0)	1,175(100)	1906
	延恩坊	2(2.5)	81(100)	1903		瑞麟坊	14(6.6)	213(100)	1906
	延禧坊	9(3.5)	254(100)	1903		長通坊	64(7.9)	810(100)	1906
	順化坊	56(23.3)	240(100)	1903		寬仁坊	50(11.8)	424(100)	1906
	嘉會坊	44(16.2)	272(100)	1903		澄清坊	29(12.5)	233(100)	1906
	廣化坊	52(21.0)	253(100)	1903	東署	蓮花坊	30(13.2)	227(100)	1903
	安國坊	22(12.8)	172(100)	1903	西署	盤松坊	69(13.9)	495(100)	1903
	鎮長坊	83(21.0)	401(100)	1906		龍山坊	77(30.8)	250(100)	1903
	觀光坊	66(10.8)	611(100)	1906	南署	豆毛坊	10(2.3)	444(100)	1903
	陽德坊	11(6.7)	165(100)	1906		廣通坊	31(16.0)	194(100)	1903
	俊秀坊	62(19.0)	327(100)	1906		薰陶坊	108(13.7)	791(100)	1903

	通義坊	4(11.1)	36(100)	1906		大平坊	13(6.8)	191(100)	1903
中署	堅平坊	32(7.1)	450(100)	1906		會賢坊	53(20.2)	262(100)	1903
	慶幸坊	72(19.2)	376(100)	1906					
	壽眞坊	25(8.5)	295(100)	1906					

비고) ① 1896·1903·1906년의 전체 한성부 호적에서 중북 지역에 대한 호적 정리는 다음과 같다. 북서 연희방(1896·1904 → 1904), 순화방(1903·1906 → 1903), 가회방(1903·1906 → 1903), 안국방(1903·1906 → 1903), 양덕방(1896·1906 → 1906), 광화방(1903·1906 → 1903), 중서 건평방(1903·1906 → 1906).

② A(B)에서 A는 인원수이며, B는 백분율을 표기한 것임.

③ 진장방과 광동방의 平民 각 1호도 平民에 포함시킴.

④ 평민과 다른 직업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평민에 포함시킴.

당시 한성부 호적에 기재된 평민은 지역에 따라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전국의 광무호적 중에서 오로지 한성부 호적에서만 평민이 집중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동시기의 다른 지역 호적에서 호주 직업이 평민으로 기재된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서,⁵⁾ 한성부 호적에서만 평민이 집단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둘째, 한성부 호적에서 평민 호주는城外 지역보다城内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8坊 지역을 대상으로 성외 지역에서 평민 호주가 다수 기재되었던 사례로 서서의 반송방과 용산방을 제외하고 매우 낮았으며, 반면에 성내 지역은 비교적 높은 비율에서 고르게 분포하였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당시 한성부 호적에서 평민 호주는 성외의 농촌 지역보다 성내의 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5署 지역별로 평민 호주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5서별 평민 호주의 거주 비율은 북서 14.1%, 중서 12.2%, 동서 13.2%, 서서 19.6%, 남서 11.4%로, 서서 지역에서 평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서와 남서가 평균 비율인 13.2%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거주 비율의 차이는 5서 지역별로 평민에 대한 개념과 이해에서 차이가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서 거주민과 중·남서 거주민 사이에서 평민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랐기에, 해당 지역의 거주민 중에서 자신을 평민으로

5) 한성부 호적을 제외하고 평민 호주가 나타나는 호적으로, 光武 2년(1898) 『仁川港沓洞外洞戶籍』이 있다. 해당 호적의 전체 409명 호주 중에서 평민 호주로 3호가 확인된다.

규정하는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호적에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기재한 사례는, 한성부의 성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은 성내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평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당시 한성부 성내 거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공유되었던 평민에 대한 공통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었다.

한성부 성내의 지역 특성을 성외와 비교해 보면 첫째, 호주 직업이 다양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전·현 관료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직업 특성을 바탕으로 20칸 초과 대규모 와가를 소유한 사례에서 높았으며, 그들의 호에 기구·고용이 기재된 비율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그들은 가족 구성에서 6인 이상 가족과 직계와 비직계를 포함한 확대가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⁶⁾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성부 성내의 지역적 특징은 정치적 특권을 가진 전·현 관료가 다수 거주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한성부 성내의 상위 계층으로 존재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한성부 성내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특권을 가진 전·현 관료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성내의 호주 중에서 일부가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다수 기재하였던 사실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 혹은 평민의 역사적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민을 통치자인 군주, 관료 등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통치자와 민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였고 ‘민은 통치자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나타나며 士·農·工·商의 직업을 가진 존재’⁷⁾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은 피통치자 전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신분적 그리고 사회 계층적 관점에서 관직자와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직위를 갖지 못한 사람의 칭호로 이해하거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였다.⁸⁾ 그리고 이러한 관점 속에서 평민을

6) 김현진, 『1900년대 근대 도시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광무 7년(1903) 漢城府 城外 호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2017.

7) 장현근, 『민(民)의 어원에 대한 고찰』, 『정치사상연구』 15(1),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8) 윤천근, 『유학의 민(民)』, 『퇴계학』 5, 1993.

조선 후기 양반지배질서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행동 주체로서 설정하여,⁹⁾ 평민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자료 1〉

근래 宗班들이 謹潔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방자하고 무엄합니다……마을에서 폐단을 일으켜 平民을 학대하니, 온 도시 사람들이 눈을 흘겨 표범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¹⁰⁾……丙戌年에는 30년으로써 慶事를 치렀기 때문에, 士夫·平民에게 모두 加資하는 恩典이 있었으나¹¹⁾……전후의 품계를 환납하고 自由平民이 되어 市井 사이에 몸을 두어 나라에 보답하는 작은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¹²⁾

〈자료 2〉

"옛날에는 武學軍官이나 旗牌官은 三廳의 中人·庶孽이 하고, 平民은 身役に 들게 하고 東伍軍을 겸행하도록 하였는데¹³⁾……이른바 校生이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두가 다 世族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平民보다 조금 나으면서 士族에 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¹⁴⁾

상기 자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 평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첫째, 관직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대상을 평민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가문에 의해서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하고 있었다. 즉, 정치적인 의미에서 관직을 갖지 못한 그리고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이들을 평민으로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성부 호적에 기재되었던 평민 개념과 사회적 인식을 정리해 보면

9) 정창열, 『역사용어 바로 쓰기-백성·평민·민중』, 『역사비평』, 2006.

10) '近來宗班, 不思謹潔, 放肆無嚴……作弊閭里, 賊虐平民, 都市側目, 視如豺虎'(『肅宗實錄』 권 39, 30년 4월 28일).

11) '丙戌年以三十年稱慶, 故士夫、平民, 皆有加資之典'(『肅宗實錄』 권 48, 36년 5월 6일).

12) '茲願還納前後品階 乞고 降爲自由平民 乞야 以便置身於市井之間, 而效報國之微忱也'(『承政院日記』 純宗 1년 9월 13일).

13) '古則武學軍官旗牌官, 三廳中庶爲之, 平民則入於身役, 兼行東伍'(『英祖實錄』 권 4, 1년 3월 12일).

14) '但所謂校生者. 未必皆是世族也. 只是稍勝於平民. 而未及於士族'(『潛谷遺稿』 권 7, 啓辭).

첫째, 광무호적에서 평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성부 호적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한성부 내에서 평민의 거주 비율은 성외보다 성내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둘째, 한성부 성내에서 평민이 높게 나타난 현상과 성내의 지역 특성 사이의 관련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내의 다양한 지역 특징 중에서 전·현 관료의 거주가 성내에서 높게 나타났던 점에 주목하였다.

셋째, 조선 후기의 관찬 자료와 개인 문집을 통해서 당시 평민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관직에 의한 신분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즉 관직에 있지 않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기의 1~3 내용을 연결 지어 보면, 조선 후기 이래로 평민은 관직을 갖고 있지 않는, 정치적 특권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관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성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관직자와 非관직자로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 결과로 한성부 성내의 거주민 중에서, 호적에 자신의 직업을 적을 때에 ‘관직자가 아니다’는 의미를 우선하여 평민으로 기재했을 것이다.

결국, 한성부 호적에 다수 기재되었던 평민은 ‘관직에 있지 않는, 정치적 특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평민 개념을 오로지 관직에 있지 않는 자로 단순하게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바로 서서에서 높게 나타난 평민 비율이다. 서서 지역은 성외 지역이었고, 관료 호주의 거주 비율이 높지 않는 곳이었다.¹⁵⁾ 그럼에도 평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당시 평민 개념이 ‘관직에 있지 않는 자’ 이외에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성부 평민 호주의 호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공통된 생활 방식과 집단성을 추적하여 평민의 또 다른 개념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15) 한성부 호적 28坊 9,834戶를 대상으로 전·현 관료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32.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西甯의 전·현 관료는 盤松坊 5.5%, 龍山坊 6.4%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3. 평민집단의 분석과 계층적 성격

본 장은 한성부 호적에 기재된 평민 호주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들의 공통된 생활방식과 계층적 성격을 파악하여, 앞서 살펴본 한성부의 평민 개념과 사회적 인식에 재접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광무 7년·10년 한성부 호적을 대상으로, 28坊 지역의 9,834호 중에서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기재한 사례는 1,303호이며 전체 호주의 13.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성부 호적에 기재된 평민 호주의 특징과 그들의 집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28방 중에서 평민 거주 평균 비율인 13.2%를 넘는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28방 호적 중에서 13.2%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북서 5곳(순화방·가회방·광화방·진장방·준수방), 중서 2곳(경행방·정선방), 동서 1곳(연화방), 서서 2곳(반송방·용산방), 남서 3곳(광통방·훈도방·회현방)이며, 총 13방 호적의 937명 평민 호주이다.

[표2] 평민 호주의 연령 분석 I

지역 연령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합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10대	5	1.7	6	2.1	-	-	3	2.1	2	1.0	16	1.7
20대	28	9.3	30	11.0	2	6.7	14	9.6	23	12.0	97	10.3
30대	67	22.3	73	26.9	6	20.0	32	21.9	46	24.0	224	23.9
40대	83	28.0	59	21.7	9	30.0	43	29.5	51	26.6	245	26.1
50대	71	24.0	64	23.6	6	20.0	34	23.3	44	22.9	219	23.4
60대~	43	14.7	39	14.4	7	23.3	20	13.6	26	13.5	135	14.5
기타	-	-	1	0.3	-	-	-	-	-	-	1	0.1
합	297	100	272	100	30	100	146	100	192	100	937	100

비고) 기타는 원문의 훼손과 무기재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임.

[표3] 평민 호주의 연령 분석Ⅱ

연령	지역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평민	전체	평민	전체								
~10대	-	0.3	-	0.2	-	-	-	-	-	-	-	0.4
10대	1.7	1.6	2.1	2.6	6.7	2.0	2.1	1.0	1.0	1.0	3.2	
20대	9.3	13.0	11.0	13.0	20.0	10.6	9.6	10.1	12.0	11.6		
30대	22.3	24.5	26.9	21.7	30.0	21.8	21.9	22.4	24.0	22.7		
40대	28.0	23.4	21.7	24.3	20.0	23.9	29.5	27.1	26.6	24.3		
50대	24.0	22.1	23.6	23.5	23.3	24.9	23.3	23.2	22.9	20.7		
60대~	14.7	14.6	14.4	14.4	-	16.8	13.6	15.7	13.5	16.1		
기타	-	0.5	0.3	0.3	-	-	-	0.5	-	1.0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① 기타는 원문의 훼손과 무기제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임.

② 전체 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평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호임.

먼저 평민 호주의 연령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전체 평균 30~40대에서 50%를 보이며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성부 호주의 주요 연령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¹⁶⁾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요 연령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북서와 서서는 40~50대, 중서와 남서 그리고 동서는 3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민 호주와 평민이 아닌 호주를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평민 호주는 10대 이하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평민 호주의 주요 연령대가 조금 더 높았지만, 두 집단의 연령 특성에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호주 연령은 평민의 개념과 특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단지, 지역별 평민 호주의 주요 연령대가 북서와 서서에서 동일하였고, 중서와 남서 그리고 동서가 동일하게 나타났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후 살펴볼 평민 호적 분석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평민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었다.

16) 김현진,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2018, 586쪽([표7-2]광무 7년 성내·외 지역 호주의 연령 비교 참조).

[표4] 평민 호주의 父 직업

지역 부직업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합		전·현 관료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正2品	2	0.7	1	0.4	-	-	1	0.7	-	-	4	0.4	5	5.1
從2品	13	4.4	3	1.0	-	-	-	-	-	-	16	1.7	11	11.1
正3品	3	1.0	3	1.0	-	-	-	-	2	1.1	8	0.9	6	6.1
從3品	-	-	-	-	-	-	-	-	-	-	-	-	1	1.0
從4品	-	-	1	0.4	-	-	-	-	-	-	1	0.1	-	-
從5品	-	-	-	-	-	-	-	-	-	-	-	-	1	1.0
正6品	-	-	2	0.8	1	3.3	-	-	-	-	3	0.3	3	3.0
從6品	2	0.7	1	0.4	-	-	-	-	-	-	3	0.3	3	3.0
從7品	-	-	-	-	-	-	-	-	1	0.5	1	0.1	4	4.0
從9品	1	0.3	1	0.4	-	-	1	0.7	1	0.5	4	0.4	5	5.1
進士	-	-	1	0.4	-	-	-	-	-	-	1	0.1	1	1.0
出身	1	0.3	3	1.0	1	3.3	-	-	2	1.1	7	0.8	1	1.0
幼學	-	-	1	0.4	1	3.3	-	-	1	0.5	3	0.3	1	1.0
學生	76	25.6	40	14.7	12	40.1	3	2.1	11	5.7	143	15.3	17	17.2
不明	-	-	1	0.4	-	-	-	-	-	-	1	0.1	-	-
勅任官	-	-	-	-	-	-	-	-	-	-	-	-	3	3.0
奏任官	-	-	-	-	-	-	-	-	-	-	-	-	1	1.0
무기재	199	67.0	214	78.7	15	50.0	141	96.5	174	90.6	742	79.2	36	36.4
합	297	100	272	100	30	100	146	100	192	100	937	100	99	100

비고) ① 不明은 원문이 훼손되어 부의 직업을 정확히 파악 못한 사례임.

② (전·현) 관료의 부 직업은 광무 10년(1906) 北署 陽德坊 호적에 기재된 (전·현) 관료 호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다음으로 평민 호주의 父 직업을 살펴보았다. 평민 호주의 부 직업을 분석해 봄으로써, 평민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였다. 가문의 사회적 지위는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평가되고 유지된다.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불명확한 평민으로 기재했던 호주, 그들의 부 직업 분석을 통해서 당시 평민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5서 평균 비율 면에서, 父의 직업은 조선 후기 당상관 3.0%, 당하관 1.2%이었으며, 儒業 관련 16.5%, 불명 0.1% 그리고 무기재 79.2%이었다.

첫째, 부 직업의 항목별 비율에서 무기재가 전체의 79.2%로 매우 높았으며, 그들이 자신의 부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비율에서 전체 한성부 거주자와 비교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문일수록, 호주는 자신의 부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상기 표에 전·현 관료 호주의 부 직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시 한성부의 상위 계층이었던 전·현 관료 호주는 부 직업을 무기재하였던 사례에서 전체의 36.4%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다수의 평민 호주가 자신의 부 직업을 호적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상위 집단과 비교해서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민 호주의 부 직업이 관직자로 기재된 사례가 4.2%로 나타났다. 전·현 관료 호주는 해당 사례에서 43.4%이었다는 점에서, 평민 호주의 부 직업이 관직자로 기재된 비율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현 관료들은 그들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료라는 직업을 세대로 지속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평민 호주들은 그들의 부 직업에서 관직자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당시 한성부 상위 계층들이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관직으로 지속·유지하고 있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평민 호주의 부 직업이 5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북서와 중서 그리고 동서에서 부 직업 무기재 사례는 5서 평균 비율보다 낮았으며, 관직 사례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서서와 남서의 평민 호주는 부 직업 무기재 비율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관직 비율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민 호주의 경제적 수준을 호적에 기재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평민 호주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호적 내용은, 그들의 가택 규모와 유형 그리고 기구·고용 인원수이다. 해당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평민 호주의 경제적 수준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성부의 전·현 관료

와 상인 그리고 농민 계층과 비교 분석하였다.

평민 호주의 가택 규모를 살펴보면 첫째, 가택 규모 6~10칸에서 47.8%로 가장 높았으며, 11칸 이상의 가택은 전체의 13.6%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민 호주의 47.8%가 6~10칸의 가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가택 규모에 의한 경제적 상황이 한성부 전체 호주와 비교해서 낮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20칸 초과 가택에 거주했던 평민 호주 비율은 매우 낮았던 점으로 볼 때, 다른 상위 계층과 다르게 평민 계층 내에서 일부에 의한 부의 집중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평민 호주의 경제적 수준을 가택 규모로 보았을 때, 그들은 한성부에서 경제적으로 중간 혹은 보통의 수준을 보였다.

[표5] 평민 호주의 가택 규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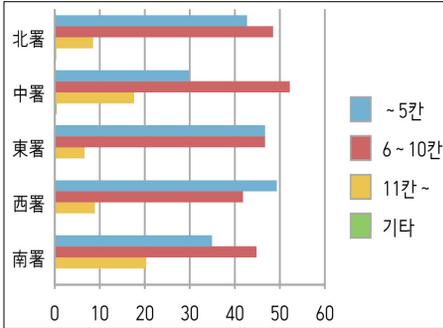
지역 가택 규모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5칸	127	42.7	81	29.8	14	46.7	72	49.3	67	34.9
6~10칸	144	48.5	142	52.2	14	46.7	61	41.8	86	44.8
11~15칸	18	6.1	36	13.2	2	6.6	9	6.2	27	14.0
16~20칸	5	1.7	3	1.1	-	-	4	2.7	8	4.2
21칸~	2	0.7	9	3.3	-	-	-	-	4	2.1
기타	1	0.3	1	0.4	-	-	-	-	-	-
합	297	100	272	100	30	100	146	100	192	100

비고) ① 기타는 원문의 훼손과 무기제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임.

② 반 칸 가택은 반 칸 수치를 제외하고 해당 칸수에 포함함(예 5.5칸 → 5칸).

둘째, 5서 지역에 따라서 평민 호주의 가택 규모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6~10칸의 평균 비율 47.8%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중서와 북서가 해당 되었으며, 11칸 이상의 평균 비율인 13.6%를 넘는 지역으로, 중서와 남서가 포함되었다. 평민 호주의 경제적 수준을 가택 규모로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중서}남서}북서}동서}서서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구분했을 때에, 중서와 남서가 상위 지역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

며, 서서가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지역별 평민 호주 가택 규모

〔표6〕 평민 호주의 가택 규모Ⅱ¹⁷⁾

규모 \ 직업	평민	관료	상인	농민
~5칸	38.4	8.1	30.0	54.2
6~10칸	47.8	38.4	41.4	42.4
11~15칸	9.9	27.3	15.9	3.4
16~20칸	2.1	11.1	6.8	-
21칸~	1.6	15.1	5.5	-
기타	0.2	-	0.4	-

평민 호주의 가택 규모를 다른 직업 호주와 비교해 보면, 평민과 전·현 관료 그리고 상인 호주는 모두 6~10칸에서 가장 높았으며, 농민 호주만 5칸 이하 가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택 규모는 해당 호주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호주의 직업에 따라서 가택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평민 호주의 경제적 수준은 다른 직업 호주와 비교를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11칸 이상의 가택 규모 비율이다.

한성부의 상위 계층이었던 전·현 관료들은 11칸 이상 가택에서 5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평민 호주의 가택 규모는 11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전·현 관료 계층 이외에 상인 호주와 비교해 보면, 6~10칸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상인 호주 28.2%가 11칸 이상 가택에서 거주했음에 비해서, 같은 규모의 가택에서 거주했던 평민 호주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택 규모 면에서 평민 계층이

17) 관료는 光武 7년 北署 嘉會坊 전·현 관료 호주 110명, 농민은 광무 7년 北署 常平坊 농업 호주 118명, 상인은 전체 28방 지역 중에서 상업 호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광무 7·10년 10방 1,250명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김현진,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양상과 가족 특성-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019, 29쪽, [표13] 1903·1906년 한성부 상인의 가택 규모를 참조함).

전·현 관료 그리고 일부 상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던 상황을 보여 주었다

[표7] 평민 호주의 가택 유형 I

가택 유형 \ 지역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己草	250	84.2	154	56.5	18	60.0	130	89.0	112	58.3
借草	6	2.0	13	4.8	-	-	2	1.4	7	3.6
기초+차초	-	-	15	5.5	-	-	-	-	3	1.6
己瓦	14	4.7	53	19.5	3	10.0	9	6.1	35	18.2
借瓦	9	3.0	10	3.7	-	-	1	0.7	8	4.2
기와+기초	15	5.1	25	9.2	9	30.0	2	1.4	23	12.0
기와+차초	-	-	-	-	-	-	1	0.7	1	0.5
차와+차초	2	0.7	1	0.4	-	-	1	0.7	3	1.6
기타	1	0.3	1	0.4	-	-	-	-	-	-
합	297	100	272	100	30	100	146	100	1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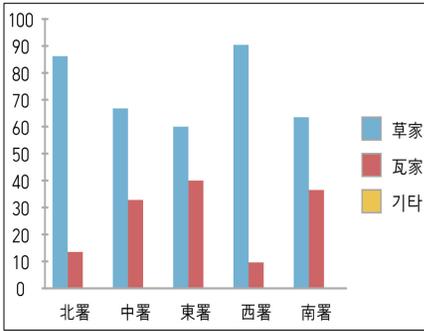
비고) ① 기타는 원문의 훼손과 무기제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임.

② 2개 이상의 가택 유형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 칸수가 큰 가택 유형을 맨 앞으로 하여 구분함.

다음으로 평민 호주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가택 유형을 살펴보았다. 첫째, 가택 유형별 거주 비율은 草家 75.8%, 瓦家 24.0%, 기타 0.2%로 확인된다. 한성부 평민 호주 중에서 초가 거주자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초가 보다 와가에 거주했던 호주가 경제 능력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기에,¹⁸⁾ 한성부 평민의 경제적 수준은 가택 유형 면에서 상위에 속하지 못하고 중하위 집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별 가택 유형을 살펴보면, 초가는 서서>북서>동서>남서>중서 순으로 높았으며, 와가는 동서>중서>남서>북서>서서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가택 유형에 의한 경제적 수준을 와가와 초가의 비율로만 판단했을 때에, 중서>남서>동서>북서>서서

18) 요시다 미츠오 지음, 김동철 옮김, 『근세 서울 도시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134쪽.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가택 규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평민 호주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택 유형에 따른 경제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 지역별 평민 호주 가택 유형

[표8] 평민 호주의 가택 유형 II¹⁹⁾

유형 \ 직업	평민	관료	상인	농민
기초	72.8	50.5	57.5	96.6
차초	3.0	8.1	2.1	-
기와	20.3	32.3	38.2	3.4
차와	3.7	9.1	2.2	-
기타	0.2	-	-	-
합	99.8	100	100	100

평민의 가택 유형 비율을 다른 직업 호주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초가 거주 비율은 농민>평민>상인>관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와가는 관료>상인>평민>농민 순으로 나타났다. 와가와 초가의 거주 비율을 통해서 직업별 경제력을 분석했을 때에, 관료>상인>평민>농민 순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가택 규모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직업별 가택 유형에 따른 경제력은 상위의 관료, 중상위의 상인, 중위의 평민 그리고 하위의 농민으로 구분되었다.

[표9] 평민 호주의 畝口·雇傭 I

지구 고용	지역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지구남		2	6.9	10	19.6	1	100	2	33.3	8	15.7
지구녀		5	17.2	5	9.8	-	-	1	16.7	5	9.8

19) 관료는 광무 7년 北署 嘉會坊 전·현 관료 호주 110명, 상인은 광무 7·10년 한성부 10坊의 상업 호주 1,250명, 농민은 광무 7년 北署 常平坊 농업 호주 1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김현진,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양상과 가족 특성-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53, 2019, 30쪽, [표12] 1903·1906년 한성부 상인의 가택 유형을 참조함).

기구남녀	18	62.0	18	35.3	-	-	2	33.3	12	23.5
기구+고용	1	3.5	4	7.8	-	-	-	-	6	11.8
고용남	1	3.5	3	5.9	-	-	-	-	2	3.9
고용녀	-	-	-	-	-	-	-	-	6	11.8
고용남녀	2	6.9	11	21.6	-	-	1	16.7	12	23.5
합	29	100	51	100	1	100	6	100	51	100
기구고용호수 /전체 호수	9.8%		18.8%		3.3%		4.1%		26.6%	

마지막으로 평민 호주의 경제적 수준을 그들의 호적에 기재되었던 畜口·雇傭 비율로 살펴보았다. 당시 기구·고용은 독립된 호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호에 기거하며 해당 호주에게 숙식 혹은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자들이었다.²⁰⁾ 때문에 자신의 호에 기구·고용을 포함하였던 호주는, 기구·고용이 없는 호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또한 기구·고용 유형은 호주의 경제력에 따라서 고용 남녀>기구+고용>기구 남녀 순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기구·고용 유형 중에서 고용 남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호주는 상위의 경제력을 갖춘 전·현 관료 그리고 일부 상인 계층에서 다수 나타났다.²¹⁾

상기 표를 보면, 전체 평민 호주 937명 중에서 기구·고용과 함께 기거했던 평민 호주는 138명으로 전체 평민의 14.2%로 나타났다. 다른 직업 계층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가회방의 전·현 관료는 기구·고용 비율에서 28.7%이었으며 상평방 농민은 1.0% 그리고 5서 10방에서 선별된 상인은 평균 13.7%로 나타났다.²²⁾ 기구·고용 비율로 보면 전·현 관료>평민>상인>농민 순을 보였는데, 기구·고용 유형에서 상위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고용 남녀가 상인

20) 1896년 새로운 호적법에 畜口는 戶를 구성하지 못하고 無家無依 하거나 戶內 寄居하는 자로 규정하였다(『戶口調査細則』, 內部令第八號(『官報』第四百二十三號, 建陽元年 九月八日)).

21) 김현진, 『19세기말 仁川港 거주민 양상과 대민통치방식-光武 2년(1898) 仁川港 峇洞·外洞 戶籍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 2014, 69~71쪽.

22) 김현진,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양상과 가족 특성-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019, 25~28쪽.

31.6%,²³⁾ 평민 18.8%로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기구·고용에 따른 경제력은 <관료>상인>평민>농민 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표10] 평민 호주의 기구·고용 II

기구 고용	지역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평민	전체	평민	전체	평민	전체	평민	전체	평민	전체
가구남		6.9	3.8	19.6	4.1	100	6.4	33.3	19.2	15.7	3.8
가구녀		17.2	8.8	9.8	5.7	-	19.4	16.7	11.5	9.8	4.3
가구남녀		62.0	25.1	35.3	22.5	-	22.6	33.3	42.3	23.5	12.1
가구+고용		3.5	19.6	7.8	20.8	-	22.6	-	7.7	11.8	29.4
고용남		3.5	4.5	5.9	5.3	-	6.4	-	-	3.9	3.2
고용녀		-	10.8	-	10.6	-	3.2	-	3.9	11.8	8.3
고용남녀		6.9	27.4	21.6	31.0	-	19.4	16.7	15.4	23.5	38.9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전체 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평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호임.

상기 표는 5서별 각 지역에서 기구·고용을 포함한 평민 호주와 평민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호주를 구별하여,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구·고용 비율을 비교한 내용이다. 5서 전 지역의 평민 호주는 기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고용(가구+고용 포함)은 전체 호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에, 평민은 한성부의 상위 계층과 다르게 그들의 집단 안에서 부의 편중 없이 경제적으로 고른 상황에 있었던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평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살펴보기 위해서, 호적에 기재된 다양한 정보들, 연령, 부 직업, 가택 규모와 유형 그리고 기구·고용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첫째, 평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상위의 관직, 중상위의 상인 그리고 하위의 농민 계층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23) 김현진, 앞의 논문, 2019, 27쪽.

평민은 대부분의 분석 결과에서 다른 직업 계층과 구별되는 집단성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적 존재 양상은, 그들을 사회경제적 위치에서 상인과 농민 사이에 중위의 계층으로 나타났으며, 관료 그리고 일부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득권에서 벗어나 근대 초기 한성부에서 보통의 그리고 평범한 서민 계층을 대변하고 있었다. 앞서 당시 평민의 개념이 '정치적인 특권, 관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평민 호주의 호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의 평민은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의 평범한 자'라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하고 있었다.

당시 한성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부의 집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로 구별하는 성향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한성부 호주 중에서 자신은 상위의 경제력을 갖춘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이 아니라 보통 그리고 평범한 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적의 직업 항목에 자신을 평민으로 기재했던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둘째, 평민 호주를 5서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평민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 5서별 평민은 사회경제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을 종합하면 중서>남서>북서>동서>서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와 관련하여, 평민 호주의 거주 비율은 서서 19.6%, 북서 14.2%, 동서 13.2%, 중서 12.2%, 남서 11.4% 순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았던 서서 지역은 평민의 거주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중서와 남서 지역은 평민의 거주 비율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신을 평민으로 규정하는 기준과 상황에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관직과 같은 정치적 특권을 중시하는 지역 그리고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자를 상위 계층으로 파악하는 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평민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평민 기재 비율에서도 차이를 발생시켰다.

마지막으로 평민 계층의 특성을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앞서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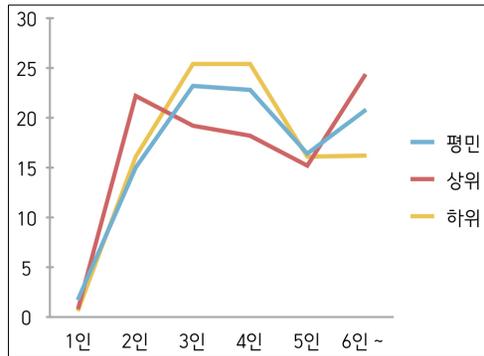
펴본 호주의 개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동거 친속에 주목하여 가족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호적에 기재된 항목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으로 호의 남녀 인구 합과 동거 친속이 있다. 첫째, 평균 가족의 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3·4인 가족 규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인 이상 가족 규모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5인 이상의 가족 규모에서 북서와 동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서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표11] 평민 호주의 가족 규모 I

가족 규모	지역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1인		5	1.7	7	2.6	1	3.3	3	2.1	2	1.0
2인		43	14.5	37	13.6	3	10.0	24	16.4	33	17.2
3인		61	20.5	70	25.8	3	10.0	42	28.8	41	21.4
4인		65	21.9	62	22.8	11	36.7	28	19.2	48	25.0
5인		47	15.8	48	17.6	5	16.7	24	16.4	30	15.6
6인~		76	25.6	48	17.6	7	23.3	25	17.1	38	19.8
합		297	100	272	100	30	100	146	100	192	100

[표12] 평민 호주의 가족 규모 II

규모	직업	평민	관료	상인	농민
1인		1.9	1.0	9.2	0.8
2인		15.0	22.2	12.6	16.1
3인		23.2	19.2	21.0	25.4
4인		22.8	18.2	19.8	25.4
5인		16.4	15.2	15.7	16.1
6인~		20.7	24.2	21.7	16.2
합		100	100	100	100



<그림 3> 계층별 가족 규모²⁴⁾

24) 한성부의 상위 계층은 光武 7년 北署 嘉會坊 전·현 관료 호주 110명, 하위 계층은 광무 7년 北署 常平坊 농민 호주 11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이다(김현진,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양상과 가족 특성-1903·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019, 21쪽, [표7] 1903·906년 한성부 상인의 가족 규모를 참조함).

평민의 가족 규모를 다른 직업의 가족과 비교해 보면, 3~4인 가족 규모에서 농민>평민>상인>관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 가족 규모는 관료>상인>평민>농민 순이었다. 호주 직업에 따라서 가족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상기 그림에서 보이듯 평민 가족 규모의 그래프 곡선은 하위 계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반대로 상위 계층과 차이를 보였다. 당시 한성부라는 도시에서 대규모의 가족을 형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호주의 경제력이었으며, 이에 호주의 직업이 상위 계층에 해당될수록 그들의 가족 규모는 5인 이상 사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성부에서 호주 직업에 따른 가족 규모가 관료>상인>평민>농민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 평민 가족의 경제력이 상위 계층에 포함되지 못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표13] 평민 호주의 가족 유형 I

가족 유형	지역		北署		中署		東署		西署		南署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독남	5	1.7	7	2.6	1	3.3	3	2.1	1	0.5		
독녀	-	-	-	-	-	-	-	-	1	0.5		
호주+처(첩)	33	11.1	33	12.1	3	10.0	15	10.3	30	15.6		
호주+처(첩)+ 미혼자녀	130	43.8	108	39.7	14	46.7	72	49.3	66	34.4		
직계	82	27.6	82	30.1	9	30.0	38	26.0	65	33.9		
非직계	47	15.8	41	15.1	3	10.0	18	12.3	26	13.5		
기타	-	-	1	0.4	-	-	-	-	3	1.6		
합	297	100	272	100	30	100	146	100	1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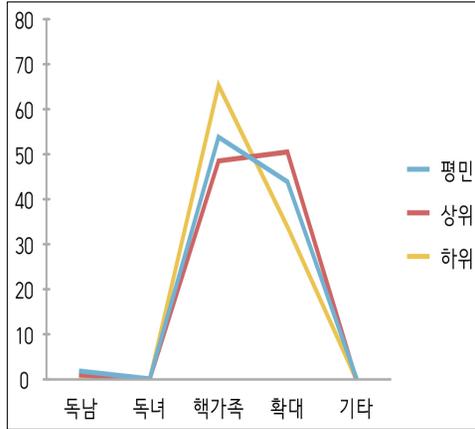
비고) 기타는 원문의 훼손과 무기제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임.

평민 가족의 유형 분석은 그들 호적에 기재된 동거친속을 친속 관계에 따라서 정리하였으며, 7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평민의 가족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호주와 처(첩) 그리고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전체의 4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서의 평민 가족

49.3%가 핵가족으로 나타나 5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남서와 중서는 직계와 非직계를 포함한 확대가족에서 모두 45.0%를 초과하면서, 확대가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었다.

[표14] 평민 호주의 가족 유형II

유형 \ 직업	평민	관료	상인	농민
독남	1.8	1.0	9.5	0.8
독녀	0.1	-	0.3	-
호주+처(첩)	12.2	21.2	10.2	10.2
호주+처(첩) +미혼자녀	41.6	27.3	37.2	55.1
직계	29.5	36.4	29.4	27.1
비직계	14.4	14.1	13.4	6.8
기타	0.4	-	-	-
합	100	100	100	100



〈그림 4〉 계층별 가족 유형²⁵⁾

평민 호주의 가족 유형을 다른 직업 계층과 비교를 해 보면, 핵가족 순위에서 농민>평민>상인>관료 순이었으며, 직계와 비직계로 구성된 결합가족은 관료>평민>상인>농민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성부에서 상위의 관료 가족은 직계와 비직계를 포함하여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는 성향이 강했다면, 중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호주+처(첩)+미혼자녀 중심으로 가족을 형성하였다. 상기의 그림을 보면, 평민 가족의 유형은 상위와 하위 계층의 중간 형태를 보였으며, 호주 직업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즉, 호주의 직업에 따라서 그들 가족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력에서 차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5) 한성부의 상위 계층은 光武 7년 北署 嘉會坊 전·현 관료 호주 110명, 하위 계층은 광무 7년 北署 常平坊 농민 호주 11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김현진, 앞의 논문, 2019, 24쪽, [표9] 1903·906년 한성부 상인의 가족 유형을 참조함).

4. 맺음말

본 연구는 광무 7·10년 한성부 호적을 대상으로, 직업 항목에 자신을 평민으로 기재하였던 937명 호주를 분석하여, 당시 평민의 존재 양상과 그들의 사회 계층적 정체성을 복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 초기 평민에 대한 역사적 개념과 성격을 밝히었다.

첫째, 평민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성부 평민의 지역적 분포 그리고 조선 후기 관찬 사료와 개인 문집을 대상으로 접근하였다. 조선 후기 이래로 평민은 宗班·士夫·中人·賤人과 구별되는 법제·사회적 신분으로 서술되거나, 관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한성부 호주 중에서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다수 기재하였던 사례는, 평민을 신분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적인 관점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났다.

한성부는 근대 초기의 대표적 도시이자 정치·경제·군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왕의 거주지이며 국가 주요 시설과 중앙 관청이 집중되었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당시 한성부의 전체 거주민 중에서 전·현직 관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 특성을 통해서 한성부에서 정치적 특권을 가진 상위 계층으로 역할하고 있었다.

한성부 광무호적의 직업 항목에서 평민이 다수 기재되었던 상황은, 한성부라는 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관직자와 非관직자에 대한 사회적 구별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관직자가 아닌 점을 우선하여 평민으로 기재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성부 광무호적에 기재된 평민을 단순히 ‘관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란 포괄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평민에 대한 복합적 개념을 찾기 위해서 평민 호주의 호적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한성부 광무호적에 자신의 직업을 평민으로 기재했던 937명 호주의 개인 정보와 가족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실적인 존재 양상과 집단적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평민 호주의 개인 정보 분석은 연령과 父의 직업, 가택 내용, 기구·고용 등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살펴보았다. 평민은 30~40대가 주요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아서 연령이 평민의 성격과 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부 직업을 살펴보았을 때에 평민의 성격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민 호주의 부 직업은 무기재 79.2%, 관료 4.2%, 기타 16.6%로 나타나 상위 계층인 관료와 비교했을 때에, 그들의 부 직업은 무기재 비율에서 매우 높았으며 관료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등, 당시 평민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상위 계층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던 상황을 보였다.

평민 호주의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하여, 그들의 가택 규모는 전체 평균 6~10칸(47.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1칸 이상의 가택에선 전·현 관료 그리고 상인 호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평민 호주의 가택 유형은 초가에서 75.8%로 매우 높았으며, 전·현 관료와 상인 호주의 가택 유형과 비교해서 와가 보다 초가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기구·고용 유형 중에서 기구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고용에선 낮게 나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위 계층과 비교해 중위 혹은 평균적인 수준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민 호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그들의 호적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상위의 관료와 완전히 구별되었으며 중상위의 상인 그리고 하위의 농민 사이에서 중위 계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관료 그리고 일부의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득권에서 벗어나 근대 초기 한성부에서 보통의 그리고 평범한 서민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한성부 평민의 개념과 사회적 인식은 ‘정치적인 특권, 관직을 갖고 있지 않는 자’ 이외에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의 그리고 평범한 서민 계층’을 대변하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평민 호주의 가족 특성과 성격도 살펴보았다. 그들의 가족 규

모는 3·4인에서 가장 높았고 5인 이상의 가족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은 호주+처(첩)+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서 41.6%로 가장 높았다. 평민 가족의 규모와 유형을 종합했을 때, 그들의 가족은 3~4인 규모와 부부+미혼 자녀 중심의 가족 특성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5인 이상의 가족 규모와 부계 혈연 중심의 상위 계층과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근대 초기 한성부에 거주했던 평민은 상위 계층이었던 성내의 관료와 일부 상인 그리고 하위 계층이었던 성외의 농민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집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성부라는 근대 초기 도시 속에서 정치적 특권과 사회경제적 기득권에서 벗어나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서민으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였으며, 다양한 집단과 공존하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존재 방식과 특성을 보이는 계층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光武七年北署順化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北署嘉會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北署廣化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十年北署鎮長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十年北署俊秀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十年中署慶幸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十年中署貞善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東署蓮花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西署盤松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西署龍山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南署廣通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南署薰陶防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光武七年南署會賢坊戶籍』(국사편찬위원회 MF 소장).
 『官報』.

요시다 미츠오 지음, 김동철 옮김, 『근세 서울 도시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이유진, 『조선 후기 - 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김현진, 『1906년 漢城府 北署의 居住民 樣相과 都市性格 - 光武 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1, 2013.
 _____, 『19世紀末 仁川港 거주民 양상과 대민통치방식 - 光武 2년(1898) 仁川港 沓桐 · 外洞 戶籍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20, 2014.
 _____,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7, 2015.
 _____, 『근대 초기 漢城府 商人의 계층적 존재 양상과 가족 특성 - 1903 · 1906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53, 2019.

박희진, 『광무호적에 나타난 상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학연구』 46, 2017.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 - 丹城 培養里와 淸州 德修里의 사례 -』, 『대동문화연구』 49, 2005.
 이정주, 『19세기 말 평안북도 구성군 家戶의 구성과 거주 양태』, 『역사민속학』 43, 2013.
 이세영,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 7, 1992.
 임학성,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朝鮮人의 거주 양태』, 『한국학연구』 21, 2009.
 오 성, 『한말 경기도지방의 호주구성의 양상에 관한 一試論 - 특히 姓貫 分布와 관련하여 -』, 『역사학보』 152, 1996.
 윤천근, 『유학의 민(民)』, 『퇴계학』 5, 1993.
 장현근, 『민(民)의 어원에 대한 고찰』, 『정치사상연구』 15(1),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창열, 『역사용어 바로 쓰기 - 백성 · 평민 · 민중』, 『역사비평』, 2006.

조성윤 · 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 - 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 1996.

Boundary of life and changes of classes in early modern Hanseongbu

– commoner class listed in the family register –

Kim Hyeon Jin*

This study was initiated from a critical mind why multiple inhabitants of early modern Hanseongbu had been listed collectively in the occupation section of the family register as commoner that was not related to the occupation. Based on this perspective, it was aimed to understand the commoner's group that had lived in early modern Hanseongbu and to materialize their historical concept by reviewing the perception on the commoner in the society within the urban space of early modern Hanseongbu as well as analyzing their features of living.

Hanseongbu as the king's residence and capital was the location where national and governmental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hence, previous or current government officials shared the most among the total inhabitants in Hanseongbu due to the territorial characteristics. Government officials played roles of upper class in Hanseongbu in the socioeconomic perspective, which assumed the emphasis of social discrimination between officials and non-officials more in the occupation than the other locations. In this situation, commoners at that time were perceived as those who did not have public service job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commoners without relation of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

occupation were listed in the occupation section of the family register in Hanseongbu, unlike other territories.

Then,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ersonal information and family relations of 937 family heads who were listed as commoners in the occupation section of the family register to analyze their living styles and identity at that time.

When the commoner family heads and their family relations listed in the family register were analyzed by fathers' occupation, cohabitation status with other family and employees, size and types of houses and families, and so on, commoners showed the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sociality from government officials that were upper class and some merchants in Hanseongbu and farmers out of Hanseongbu that were lower class. They represented as the most popular and universal commoners' group in early modern Hanseongbu, socioeconomically and became the unique class to show their own living styles upon coexisting with multiple classes and groups.

Key words : Gwangmoo Family Registry, Hanseongbu, Commoner, Family, Sociality, Common people, Class